

2018학년도 11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국어 영역 •

1	④	2	④	3	④	4	③	5	④
6	②	7	⑤	8	④	9	⑤	10	②
11	⑤	12	④	13	③	14	②	15	①
16	⑤	17	④	18	③	19	④	20	①
21	②	22	③	23	⑤	24	③	25	⑤
26	②	27	④	28	①	29	①	30	②
31	③	32	④	33	①	34	③	35	④
36	①	37	③	38	③	39	②	40	③
41	④	42	⑤	43	⑤	44	⑤	45	③

[화법]

1.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의 적절성 파악하기

3문단의 ‘하루의 피로를 풀고 ~ 제라늄이 적합합니다.’에서 공기를 쾌적하게 해 주는 식물들의 구체적 예로 ‘호접란’, ‘관음죽’, ‘스킨답서스’ 등을 활용하여 강연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 [출제의도] 시각 자료를 통해 강연 내용 이해하기

3문단의 ‘하루의 피로를 풀고 ~ 호접란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에서 호접란이 낮보다 밤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에서 ‘거실에는 크기가 커서 ~ 인도고무나무를 놓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3문단에서 ‘빛은 잘 들지만 ~ 제라늄이 적합합니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3문단에서 ‘주방의 경우에는 ~ 스킨답서스가 잘 흡수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⑤ 3문단에서 ‘욕실에는 각종 냄새와 ~ 관음죽을 놓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3. [출제의도] 추가 질문의 적절성 판단하기

2문단의 ‘실내로 유입되는 ~ 오염 물질을 없애 줍니다.’에서 외부에서 실내로 유입되는 빛의 양이 많아 질수록 더 많은 오염 물질이 제거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 있으므로 발표를 들은 학생이 할 수 있는 추가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 ‘공기 중 일부 오염 물질은 화분의 토양에 흡수된’다는 사실은 드러나 있으나, 그 오염 물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는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추가 질문으로 적절하다. ② 2문단에 ‘공기 중 일부 오염 물질은 화분의 토양에 흡수된 후 식물과 공생 관계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제거’된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으나, 미생물이 오염 물질을 분해하여 제거하는 과정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추가 질문으로 적절하다. ③ 2문단의 ‘식물에서 나오는 수분’을 통해 식물에서 수분이 나온다는 사실은 드러나 있지만, 수분이 식물에서 나오는 원리는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추가 질문으로 적절하다. ⑤ 1문단 ~ 3문단에서 식물이 공기를 쾌적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지만, 공기를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공간의 면적에 따라 필요한 식물의 개수는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추가 질문으로 적절하다.

[화법 · 작문]

4. [출제의도] 글쓰기 방법 파악하기

(가)의 5문단에서 지원자가 갖추고 있는 ‘창의적 능력’과 ‘소통 능력’이라는 자질을 언급하며,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5.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의 반영 여부 파악하기

(가)의 4문단에서 ‘현재 △△시에 있는 학교들에서 ~ 못하고 있습니다.’를 통해 현재 △△시에 있는 학교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 탐색 활동의 장점이 아닌 문제점을 바탕으로 ‘전공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하여 기대되는 효과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의 ‘저는 저희 학교에서 ~ 알게 되었습니다.’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알게 된 계기를 언급하고, ‘청소년 정책 ~ 인상 깊었습니다.’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2문단의 ‘저는 고등학교 ~ 경험이 있습니다.’에서 학급 자치회장으로서 창의적인 학급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아이디어로 ~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에서 청소년참여위원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3문단의 ‘처음에는 학생자치회 ~ 찾기 힘들었습니다.’와 ‘그 후 ~ 찾을 수 있었습니다.’에서 학생자치회 활동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해결 과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에서 청소년참여위원으로서 갖춰야 할 소통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4문단의 ‘두 번째로 △△시의 ~ 제안합니다.’에서 우리 시의 문화와 청소년을 이어 주는 축제를 제안하고, ‘우리 시의 특색 있는 ~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에서 청소년들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6. [출제의도] 지원자의 말하기 전략 파악하기

[B]에서 지원자는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학교 앞 육교 설치에 대한 정책을 △△시 홈페이지에 제안한 경험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가)에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시의 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하는 청소년참여위원의 지원 분야와 관련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7. [출제의도] 면접관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나)에서 면접관은 지원자의 답변 내용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며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면접관의 세 번째 발화인 ‘그런데 자기소개서를 보니 ~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에서 면접관이 지원자의 경험과 관련된 어려움에 대해 질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지원자는 다섯 번째 발화에서 ‘그리고 죄송하지만 축제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하신 것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면접관은 다섯 번째 발화에서 ‘네, 맞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 답변하면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면접관이 지원자의 질문을 들은 후, 지원자의 긴장을 풀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면접관은 두 번째 발화에서 ‘△△시 청소년 ~ 지원했다는 이야기군요.’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지원자의 두 번째 발화인 ‘△△시의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지원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재진술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면접관의 네 번째 발화에서 ‘공동체를 대상으로 ~ 사실을 깨달았겠군요.’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지원자의 네 번째 발화인 ‘몇몇 학생들의 장난으로 ~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습니다.’에서 추측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작문]

8. [출제의도] 작문 구상의 반영 여부 판단하기

(가)에서 예상 독자인 학생들의 소속은 ‘우리 학교’임을 확인할 수 있고, (나)의 1문단 ‘이로 인해 ~ 논의가 한창이다’에서 동아리 버스 운영 방식에 대한 우리 학교의 논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9.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판단하기

㉡-2에서 버스를 방문한 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족 이유는 공간 부족이 아니라, 시간 부족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에서 ‘학교 공간을 재구성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2와 ㉡를 활용해, 버스를 방문한 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학교 공간을 재구성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해결 방안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는 현행 체험 및 전시 동아리 버스 운영 방식에 대한 만족 여부를 보여주는 설문 자료이므로 적절하다. ② ㉡-1에서 동아리 버스를 운영하는 학생들이 현행 버스 운영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시간 부족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의 3문단의 ‘물론 동아리 ~ 의견도 있었다.’에서 동아리 버스의 상설 운영이 교과 학습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일부 학생들의 문제 제기를 확인할 수 있고, ㉡의 ‘이를 통해 ~ 수 있다.’에서 버스를 직접 만들고 체험하는 지속적인 과정이 교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를 활용해 동아리 버스를 운영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해 일부 학생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반박의 근거를 추가하는 방안은 적절하다. ④ ㉡-1에서 버스를 운영하는 학생들이 불만족해 하는 이유 중에서 시간 부족이 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의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 효과적인 개선책이 될 것이다.’에서 버스 운영 시간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아리 버스 상설 운영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0. [출제의도] 조건을 고려하여 고쳐 쓰기

학생이 고쳐 쓴 글과 초고의 마지막 문단을 비교하면, 고쳐 쓴 글에 ‘학교에서 동아리 ~ 가치가 있다.’라고 하여 초고에 없던 동아리 활동의 가치를 추가하였고, 초고의 마지막 문단에 ‘그러나 동아리 ~ 유의해야 한다.’라고 한 동아리 버스 상설 운영의 유의점은 고쳐 쓴 글에서 삭제하였으므로 적절하다.

[문법]

11. [출제의도] 음운의 교체 이해하기

‘땀받이[땀바지]’는 앞말의 끝소리 ‘ㄷ’이 연음되어 뒷말의 가운뎃소리 ‘ㅣ’와 만나 앞의 음운인 ‘ㄷ’이 ‘ㅌ’으로 바뀌는 교체 현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이면서 ㉡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마천루[마철루]’는 앞말의 끝소리 ‘ㄴ’과 뒷말의 첫소리 ‘ㄹ’이 만나 앞의 음운인 ‘ㄴ’이 ‘ㄹ’로 바뀌는 교체 현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이면서 ㉡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② ‘목덜미[목뎡미]’는 앞말의 끝소리 ‘ㄱ’과 뒷말의 첫소리 ‘ㄷ’이 만나 뒤의 음운인 ‘ㄷ’이 ‘ㄸ’으로 바뀌는 교체 현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이면서 ㉡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③ ‘박람회[방남회]’는 앞말의 끝소리 ‘ㄱ’과 뒷말의 첫소리 ‘ㄹ’이 만나 앞의 음운인 ‘ㄱ’이 ‘ㅇ’으로, 뒤의 음운인 ‘ㄹ’이 ‘ㄴ’으로 바뀌는 교체 현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이면서 ㉡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④ ‘쇠불이[쇠부치]’는 앞말의 끝소리 ‘ㅌ’이 연음되어 뒷말의 가운뎃소리 ‘ㅣ’와 만나 앞의 음운인 ‘ㅌ’이 ‘ㅊ’으로 바뀌는 교체 현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이면서 ㉡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12. [출제의도] 한글 맞춤법의 규정 이해하기

‘높이’의 어근 ‘높-’에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으므로, 한글 맞춤법 제23항을 적용해, ‘노피’를 ‘높이’로 정정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높이’는 어간 ‘높-’에 ‘-이’가 결합해 만들어진 명사이므로, 제19항을 적용하여 ‘노피’를 ‘높이’로 정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① ‘돌아가다’는 앞말인 ‘돌다’와 뒷말인 ‘가다’가 결합한 합성 동사로, 앞말인 ‘돌다’의 본뜻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글 맞춤법 제15항 [붙임 1]을 적용해, ‘도라가다’를 ‘돌아가다’로 정정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다. ② ‘드러나다’는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그 본뜻에서 멀어진 합성 동사이다. 따라서 한글 맞춤법 제15항 [붙임 1]을 적용해 ‘드러났다’로 표기한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다. ③ ‘얼음’은 어간 ‘얼-’에 ‘-음’이 결합해 만들어진 명사이다. 따라서 한글 맞춤법 제19항을 적용해 ‘얼음’으로 표기한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다. ⑤ ‘홀쭉이’는 어근 ‘홀쭉-’에 ‘-이’가 결합해 만들어진 명사이고, 어근 ‘홀쭉-’에 ‘-하다’가 결합할 수 있다. 따라서 한글 맞춤법 제23항을 적용해 ‘홀쭉기’를 ‘홀쭉이’로 정정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다.

13. [출제의도] 높임 표현 탐구하기

ㄷ은 화자인 ‘형’이 조사 ‘계서’와 특수한 어휘 ‘계시다’를 사용하여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ㄱ은 화자인 ‘회장’이 학급회의라는 공적인 상황에서 종결 어미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여 상대인 ‘학급 친구들’을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ㄴ은 화자인 ‘언니’가 특수한 어휘 ‘뵙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ㄹ은 화자인 ‘학생’이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선생님’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ㄹ은 화자인 ‘아들’이 조사 ‘께’를 사용하여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4. [출제의도] 피동 표현 이해하기

‘버려지는’은 어간 ‘버리-’에 어미 ‘-어지다’가 쓰인 피동 표현이다. 피동 접미사 ‘-리-’가 결합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담긴’은 능동의 동사 어근 ‘담-’에 피동 접미사 ‘-기-’가 결합하여 실현된 피동 표현이므로 적절하다. ③ 명사 ‘구조’ 뒤에 ‘-되다’가 결합하여 주어 ‘강아지들’이 ‘구조’ 행위를 당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쓴다고’와 같이 능동 표현으로 바뀔 경우 ‘쓰인다고’의 주어인 ‘성금이’는 목적어 ‘성금을’로 바뀌므로 적절하다. ⑤ ‘열리는’은 행사를 여는 주체보다 ‘유기권 보호 행사’가 주어로서 강조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적절하다.

15.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특징 탐구하기

㉠인 ‘中庭國圀’는 현대어 풀이 ‘중국국’로 해석되므로, 중세 국어에서는 ‘에’가 비교를 의미하는 조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말이 장소임을 표시하는 조사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에서 중세 국어의 ‘-ㄹ씨’는 현대어 풀이 ‘-므로’에 해당하며, 이는 앞말이 뒤에 오는 내용과 인과관계로 연결됨을 표시하는 어미이므로 적절하다. ③ ㉢에서 중세 국어의 ‘-ㄴ’은 현대어 풀이 ‘-은’에 해당하며, 이는 앞말이 뒤에 오는 말을 수식함을 표시하는 어미이므로 적절하다. ④ ㉤에서 중세 국어의 ‘ㅣ’는 현대어 풀이 ‘가’에 해당하며, 이는 앞말이 문장의 주어임을 표시하는 조사이므로 적절하다. ⑤ ㉥에서 중세 국어의 ‘을’은 현대어 풀이에서 ‘을’에 해

당하며, 이는 앞말이 문장의 목적어임을 표시하는 조사이므로 적절하다.

[사회]

[16 ~ 20] <출전> 이학식, 「소비자행동」

16.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4문단에서 ‘FCB Grid 모델’은 판매 전략을 세우기 위해 소비자 관여도에 따라 제품을 분류하는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제품 판매 전략을 바탕으로 소비자 관여도를 구분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7. [출제의도]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인 의약품에 대해서 소비자는 자신에게 유발될 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꼼꼼하게 고려하여 구매하므로 ㉠은 고관여에 해당하고, 효능이라는 성능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성적 관여에 해당한다. ㉡인 볼펜에 대해서 소비자는 가격이 싸고 즉흥적으로 구매하므로 ㉡은 저관여에 해당하고, 디자인이 주는 즐거움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감성적 관여에 해당한다. ㉢인 휴대폰에 대해서 소비자는 선택 가능한 제품이 많아 면밀히 비교 분석하므로 ㉢은 고관여에 해당하고, 편리성을 중시하므로 이성적 관여에 해당한다. ㉤인 통조림에 대해서 소비자는 제품이 유발하는 위험이 크지 않고 별다른 고민 없이 구매하므로 ㉤은 저관여에 해당하고, 실용성을 중시하므로 이성적 관여에 해당한다. ㉥인 반지에 대해서 소비자는 가격이 비싸고 여러 매장을 둘러보며 제품에 대해 알아보려는 노력을 기울이므로 ㉥은 고관여에 해당하고, 충분한 만족감을 고려하므로 감성적 관여에 해당한다. ㉦인 치약에 대해서 소비자는 기능이 단순해서 아무 제품이나 쉽게 구매하므로 ㉦은 저관여에 해당하고, 실용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므로 이성적 관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A영역에 해당하는 제품은 ㉠과 ㉢, B영역에 해당하는 제품은 ㉡, C영역에 해당하는 제품은 ㉤과 ㉥, D영역에 해당하는 제품은 ㉣이다.

18.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하기

<보기>에서 ‘건전지’는 C영역에 해당하는 제품이다. C영역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할인권이나 견본 등을 제공해서 제품의 기능을 먼저 직접 경험하게 하고 이후에 습관적인 구매를 이끌어내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소량의 건전지를 견본으로 나누어주는 것은 적절하지만, 이를 통해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의 이미지를 홍보한다는 것은 이성적 관여에 해당하는 판매 전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카메라는 고관여이며 이성적 관여인 A영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홍보 책자를 제작할 때 제품의 구조나 작동 방식과 같은 실용성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판매 전략이 적절하다. ② 화장품은 고관여이며 감성적 관여인 B영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호감을 가질 만한 문구로 제품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게 하는 판매 전략이 적절하다. ④ 세탁 세제는 저관여이며 이성적 관여인 C영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할인권을 통해 기능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판매 전략이 적절하다. ⑤ 청량음료는 저관여이며 감성적 관여인 D영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인기 모델과의 동일시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판매 전략이 적절하다.

19.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A]에서 상황적 요인은 소비자가 제품의 구매와 관련된 특정 상황을 의미한다. <보기>에서 을은 갑을 위로하기 위해 평소 관심이 없었던 시집을 구매해서 선물하였다. 따라서 을은 갑을 위로해야 한다는 상황

적 요인에 의해서 시집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진 것이므로, 개인적 요인에 의해 관여도가 높아졌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A]에서 제품에 의한 요인은 특정 제품이 지닌 특징을 의미하는데, 이 특징은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보기>에서 자전거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만족하는 운동 기구이기 때문에 갑이 자전거를 구매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보기>에서 갑은 체력이 약해졌다는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 운동 기구에 대한 관여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져 구매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을은 갑에게 선물을 하기 위한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 시집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졌으므로 적절하다. ⑤ [A]에서 개인적 요인은 개인에게 국한되는 성향이나 자아 정체성 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갑과 을은 각각 독서와 운동을 중시하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각각 서적과 운동 기구에 높은 관여도를 갖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0.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지각’의 의미는 ‘갑각 기관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함.’이다. ‘그러하다고 생각하여 옳다고 인정함.’은 ‘긍정’의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과학]

[21 ~ 25] <출전> 최승언, 「천문학의 이해」

21. [출제의도] 글의 내용 파악하기

3문단의 ‘겉보기 운동은 관측자의 위치를 중심으로 천체가 움직이는 방향을 살펴본 것이다’를 통해 적절하지 않은 진술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① 2문단의 ‘지구에서 관측할 때 천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거나 실제 움직임과는 다르게 보이는 현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2문단의 ‘관측 시기에 따라 천체의 위치가 다르게 보이기도 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3문단의 ‘천체는 지구의 자전 때문에 ~보이게 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3문단의 ‘관측자가 북반구 중위도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관측자의 왼쪽이 서쪽이 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2. [출제의도] 내용 추론하기

그래프에서 ㉡의 위치는 서방 최대 이각이다. 4문단의 ‘V<sub>2</sub>, V<sub>3</sub>에서처럼 서쪽에 있는 경우’를 통해 금성이 서방 최대 이각에 위치할 때는 태양보다 서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5문단의 ‘금성은 관측자의 지평선 위에 ~해가 진 후 초저녁 서쪽 하늘에서 금성을 관측할 수 있다’를 통해 동방 이각에서는 초저녁 서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금성이 새벽에는 관측자의 지평선 아래에, 저녁에는 지평선 위에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서방 최대 이각일 때는 동방 이각에 위치할 때와 반대이므로 새벽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으며, 이는 금성이 새벽에는 관측자의 지평선 위에, 초저녁에는 지평선 아래에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23.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 이해하기

5문단의 ‘이각이 클수록 ~금성을 더 오래 볼 수 있다.’를 통해 금성의 이각이 클수록 각거리는 커지고 관측되는 시간은 길어지며, 금성의 이각이 작을수록 각거리는 작아지고 관측되는 시간은 짧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6문단의 ‘금성은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반달에 가까운 형태로 관측된다.’를 통해 외합에 가까울수록 보름달에 가까운 형태로, 최대 이각에서는 반달에 가까운 형태로, 내합에 가까울수록 초승달 또는 그믐달에 가까운 형태로 관측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금성의 위치가 동방 최대 이각(㉡)에서 내합(㉢)으로 변할수록 이각이

작아지므로 관측되는 시간은 짧아지며, 점점 초승달에 가까운 형태로 관측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금성의 위치가 내합(㉠)에서 서방 최대 이각(㉡)으로 변할수록 이각이 커지므로 각거리는 커지며, 관측되는 시간 역시 길어지므로 적절하다. ② 금성의 위치가 서방 최대 이각(㉡)에서 외합(㉢)으로 변할수록 이각이 작아지므로 관측되는 시간은 짧아지고, 관측되는 위상은 점점 보름달에 가까운 형태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금성의 위치가 외합(㉢)에서 동방 최대 이각(㉣)으로 변할수록 이각이 커지므로 관측되는 시간은 길어지며, 관측되는 위상은 점점 반달에 가까운 형태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금성의 위치가 동방 최대 이각(㉣)에서 내합(㉠)으로 변할수록 이각이 작아지므로 각거리는 작아지며, 관측되는 위상은 반달에서 점점 초승달에 가까운 형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이는 형태가 점점 달라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24. [출제의도]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기

금성이 관측되는 크기는 6문단의 ‘금성은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보이는 크기가 줄어들지만’과 ‘지구로 가까워질수록 보이는 크기는 커지지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금성의 밝기는 7문단의 ‘금성은 동방 최대 이각을 지나 내합으로 갈수록 점점 밝아지다가 밝기가 줄어든다.’를 통해 동방 최대 이각과 내합 사이에서 가장 밝고, 내합에 가까워질수록 다시 밝기가 줄어들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보기>를 통해 화성이 관측되는 크기는 지구에서 가까울수록 더 크게, 멀수록 더 작게 관측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문단의 ‘관측자가 태양을 바라본 방향과 ~‘이각’이라고 한다’를 통해 <보기>에서 화성의 이각이 0°일때는 합, 180°일때는 충의 위치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기>를 통해 화성의 밝기는 충에서 가장 밝게 관측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금성은 내합 부근에서 가장 크게, 화성은 충에서 가장 밝게 관측됨을 확인할 수 있다.

#### 25.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㉞는 문맥상 ‘이름이 생겼다.’를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① ‘어떤 것이 더해지거나 생겨나다.’를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말을 걸거나 치근대며 가까이 다가서다.’를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어떤 감정이나 감각이 생겨나다.’를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기대나 희망을 걸다.’를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현대소설]

[26 ~ 28] <출전> 이기영, 「농부 정도룡」

#### 26.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A]에서는 ‘전 금융조합장’, ‘전 보통학교 학무위원’ 등의 직함을 열거하여 감투를 좋아하는 김 주사의 성격을, [B]에서는 김 주사가 조금도 개의치 않고 하인을 명하여 송장을 문밖으로 끌어내게 하는 행위 제시를 통해 김 주사의 비정한 성격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27.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갑쟁이들은 우물쭈물 ~ 사리려 든다’에서 현실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단면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내 자식이니까 ~ 짓이 아닌가?’에서 올바른 삶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도룡의 태도를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동리 사람들의 ~ 집도 많다’에서 일제강점기 농촌의 궁핍한 삶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여태까지 몇 ~ 불호령을 하였다.’에서 춘이 조모가 소작하던 논을 특별한 이유 없이 마음대로 다

른 사람에게 넘기고 소작농을 꺾박하는 김 주사의 태도를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정도룡은 그들을 ~ 급히 갔다.’에서 불의를 참지 못해 춘이 조모의 장례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정도룡의 실천적 노력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28.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 파악하기

정도룡의 말을 들은 후, 용쇠가 자기를 모욕하는 줄 알고 속으로는 분하지만 참으며 듣고 있는 모습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뉘우침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동리 사람들이 정도룡을 밋고 따르며 의지하는 모습에서 그에 대한 신뢰감이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③ 춘이 조모가 논을 떼이면 먹고 살기 어렵다고 김 주사에게 애걸복걸 사정하지만, 김 주사가 막무가내로 들어주지 않는 모습에서 앞으로 살아가 할 일에 대한 춘이 조모의 막막함이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④ 춘이 모자가 춘이 조모의 죽음에 서럽게 통곡하는 모습에서 가족을 잃은 애통함이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⑤ 정도룡이 제 집 일만 보러 가는 사람들에게 벽력같이 소리를 지르는 모습에서 그들에 대한 분노가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 [고전시가]

[29 ~ 32] <출전> 송이, 「남은 다 자는 밤에 ~」  
성현, 「장상사(長相思)」  
박인로, 「상사곡(相思曲)」

#### 29. [출제의도] 표현상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는 ‘옥장 깊은 곳에 자는 님 생각은고’에서 의문형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나)는 ‘이 마음의 응어리 어느 때나 고칠까’, ‘슬픈 노래 ~ 밤 어찌 이리 긴고’에서 의문형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시름, 외로움이나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다)는 ‘우리 ㄴ티 설올런가’에서 의문형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서러움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의문형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는 진술은 세 작품의 공통점으로 적절하다.

#### 30. [출제의도] 문맥상의 의미 이해하기

㉠에서 ‘썴’은 입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이를 ‘외로운’, ‘오라가락 흐느라’라고 하여 입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천리’라고 입과의 심리적 거리감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썴’을 통해 화자가 먼 곳에서 여유롭게 살고자 하는 염원을 표현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은 ‘남은 다 자는’의 ‘남’의 상황과 ‘ㄴ 어이 홀로 썴야’의 화자의 상황을 통해 남과 다른 상황에서 외로운 처지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에서 ‘돛자리’와 ‘돛’은 각각 ‘말아 두고’, ‘굴러 낼 수 있’지만, ‘이 마음의 응어리’는 고칠 수 없다고 한 표현에서 ‘돛자리’와 ‘돛’은 화자의 마음과 대비되는 소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응어리’는 화자의 마음에 맺혀 있는 것인데, 이를 ‘어느 때나 고칠까’라고 하여 풀리지 않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은 ‘홀로 앓아’ ‘궁후’를 연주하는 소리가 ‘하소연하는 듯 흐느끼는 듯’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은 ‘슬픈 노래’를 통해 화자의 슬픈 감정을 드러내는데, ‘밤’에 잠 못 들고 있는 화자가 그 밤을 ‘어찌 이리 긴고’라고 하여 밤을 길게 느끼는 것을 통해 화자의 애절한 감정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31.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수심은 불이 ~ 놈의 탓도 아니로되’에서 ‘수심’은 가슴에서 저절로 생겨났다고 했고, ‘불’이 된 ‘수심’이 남의 탓도 아니라고 했으므로, 화자는 입과의 이별에

대해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닌 자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하늘 모퉁이’는 ‘그리운 사람’이 있는 공간인데, 이를 ‘멀리’ 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기나긴 그리움’이라 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검던 머리 회도록’에서 오랫동안이라는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여혈제’와 ‘못 보느고’에서 이별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나)의 ‘밝은 달’은 화자가 되고 싶은 대상이기 때문에 ‘임의 창문 휘장’을 비추겠다고 한 것은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다)의 ‘내 쫓’은 입을 ‘다시 볼가 보라’는 것이기 때문에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32.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 비교하기

‘원컨대 쌍쌍이 ~ 서 있고자’에서 ‘새’는 화자가 임을 보기 위해 되고 싶은 대상이므로, 임을 보고 싶은 화자의 간절한 바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심은 불이 되어’를 통해 ‘불’이 걱정을 나타냄을 알 수 있는데, ‘풍우중에 뜬노왜라’에서 ‘불’이 바람과 비에도 쉽게 꺼지지 않을 만큼 강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심 즉, 걱정하는 마음이 몹시 강함을 의미하므로, 애타는 정서를 부각하여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인문]

[33 ~ 37] <출전> 임일환 외, 「감성의 철학」

#### 33.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중심 화제인 ‘정서’에 대해 대비되는 두 이론인 감정 이론과 인지주의적 이론을 소개한 후 각 이론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34.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5문단의 ‘인지주의적 이론은 정서의 인지적 요소를 ~ 정서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정하는 이론이다.’로 보아, 인지주의적 이론은 인지적 요소를 정서와 동일시하거나 정서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정하고 있으며, 5문단의 ‘감정 자체는 정서와 동일시될 수 없고 판단이나 믿음과 같은 인지적 요소들의 복합체에 의해 초래되는 결과일 뿐이다’로 보아, 인지주의적 이론에서 감정은 인지적 요소들의 복합체에 의해 초래되는 결과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의 ‘감정 이론은 특정 정서를 ~ 느낌과 동일시하는 이론이다.’로 보아, 감정 이론은 감정과 정서를 동일시하므로 적절하다. ② 2문단의 ‘인지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 명제로 표현될 수 있는 판단이나 믿음이다’, 3문단의 ‘감정 이론은 앞의 예에서 ~ 인지적 요소는 배제한다.’로 보아, 감정 이론은 정서를 이해하는 데 명제로 표현될 수 있는 판단이나 믿음이라는 인지적 요소는 배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4문단의 ‘왜냐하면 감정 이론은, 어떻게 ~ 맞추기 때문이다.’와 5문단의 ‘인지주의적 이론은, 앞의 예에서 민호가 ~ 필수적인 요소로 인정한다.’로 보아, 인지주의적 이론은 정서를 설명하는 데 있어 상황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므로 적절하다. ⑤ 3문단의 ‘인지적 요소인 판단과 믿음은 앞의 예에서 민호가 연기를 보았다고 가정했을 때 그 ‘연기’와 같은 구체적인 대상을 전제하는데’와 5문단의 ‘인지주의적 이론은, 앞의 예에서 ~ 필수적인 요소로 인정한다.’로 보아, 인지주의적 이론에서 구체적인 대상을 전제로 하는 판단과 믿음은 정서의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 35. [출제의도] 다른 이론과 비교하기

4문단의 ‘왜냐하면 감정 이론은 ~ 정서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로 보아, 감정 이론은 내적인 감정을 정서와 동일시하고 있으며, <보기>의 ‘행동주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기능은 ~ 현상으로 기술될 수 있다는 것이다.’로 보아, 행동주의 이론은

내적인 감정이 아니라 자극과 반응의 원리를 통해 정서를 설명하려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36. [출제의도] 다른 이론과 비교하기

3문단의 ‘감정 이론은 판단과 믿음을 배제하기 때문에 정서의 지향적인 성격을 부정한다’로 보아, 감정 이론은 정서의 지향적인 성격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2문단의 ‘감정 이론은 전자를 중심으로 정서를 정의하는 이론이고’, 3문단의 ‘감정 이론은 특정 정서를 ~동일시하는 이론이다.’로 보아, 감정 이론은 느낌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정서를 이해하고 있고, <보기>의 ‘제임스는 이러한 느낌을 ~정서와 동일시한다.’로 보아, 제임스도 느낌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정서를 이해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3문단의 ‘감정은 정서와 동일시되므로 의지에 의해 통제되기 힘든 감정의 속성은 그대로 정서의 속성이 된다’로 보아, 감정 이론에서 의지에 의해 통제되기 힘든 감정의 속성은 그대로 정서의 속성이 되고, <보기>의 ‘이러한 물리적인 변화는 의지에 의해 통제되기 힘든 특정 느낌을 동반한다’와 ‘느낌들의 복합체, 즉 신체적 감각의 복합체를 공포라는 정서와 동일시한다’로 보아, 제임스는 물리적인 변화에 동반되는 특정 느낌들의 복합체를 정서로 보고 있는데 이는 의지에 의해 통제되기 힘든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3문단의 ‘감정은 정서와 동일시되므로 의지에 의해 통제되기 힘든 감정의 속성은 그대로 정서의 속성이 된다’로 보아, 감정 이론은 감정과 정서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감정의 속성은 정서의 속성이 되므로 적절하다. ⑤ <보기>의 ‘신체적 감각의 복합체를 공포라는 정서와 동일시한다’로 보아, 제임스는 신체적 감각의 복합체를 정서와 동일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37. [출제의도] 내용 추론하기

4문단의 ‘감정 이론은 감정 외적인 인지적 요소를 배제하고 감정적 요소만을 강조하기 때문에’로 보아, 감정 이론은 감정적 요소만을 강조하고 있다. 6문단의 ‘인지주의적 이론은 인지적 요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로 보아, 인지주의적 이론은 인지적 요소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두 이론은 정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 특정 요소만을 강조하고 있어서, 정서의 본질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므로 적절하다.

### [현대시 · 현대수필]

[38 ~ 41] <출전> 오장환, 「황혼」  
이형기, 「모래」  
신영복, 「비슷한 얼굴-계수님께」

#### 38.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다)의 경우 ‘무인도’와 ‘나지막한 동네’에서 공간의 대비가 드러나고 이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지향이라는 가치를 부각하고 있으나, (나)의 경우 공간을 대비하여 지향하는 가치를 부각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는 ‘고향이여!’에서, (나)는 ‘영원한 갈증!’에서 영탄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는 ‘고향이여! 병든 학이었다’에서, (다)는 ‘기성품처럼’, ‘무인도의 로빈슨 크루소처럼’에서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가)는 ‘떨엄떨엄 서 있는’에서 포도 위 가로수의 시각적 인상을 음성 상징어를 통해 구체화하고 있고, (나)에는 음성 상징어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다. ⑤ (다)는 시작과 끝에 ‘비슷한 말투, 비슷한 욕심, 비슷한 얼굴’이라는 동일한 구절을 배치하여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긍정과

소망이라는 주제를 강조하는 반면, (나)는 처음과 끝에 동일한 구절을 배치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다.

#### 39.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보기>에서 작가는 근대 자본주의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지닌다고 하였고, ‘아리따운 너의 기억’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고향에 대한 기억으로 근대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작가의 태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병든 나’와 ‘병든 학’은 각각 화자와 고향을 의미하고, <보기>에 따르면 이들 모두가 작품에서 병든 것으로 형상화되어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너는 날마다 야위어가는’에서 ‘너’는 ‘고향’을 의미하고, ‘야위어가는’ 것은 <보기>에서 언급한 고향이 퇴락해 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④ ‘어디를 가도 사람보다 일 잘하는 기계’가 늘어나는 상황은, <보기>에서 언급한 기계화가 가속되는 현실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⑤ ‘나는 힘없는 ~ 물어버린다’의 힘없는 분노와 절망을 묻어야 하는 화자의 모습에서 현실에 대한 무력감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40.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활용하여 작품 비교하기

<보기>에 따르면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소외의 원인은 개인의 독선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봄비를 뿌려주는 ‘신’은 ‘모래’의 독선적 태도를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신’이,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소외의 원인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나)의 ‘모래’와 (다)의 ‘여러 사람’은 ‘모여’ 있거나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어 <보기>에서 언급한 집단 속 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나)의 ‘모든 채 등을 돌리’는 행위와 (다)의 ‘담장을 높이’는 행위는 <보기>에서 언급한 독선적 태도라 할 수 있고, 이는 연대하지 않으려는 태도에 속하므로 적절하다. ④ (나)의 ‘꽃씨’가 ‘썩트는 법이 없’는 ‘모래밭’은 <보기>에서 언급한 황폐한 개인들의 삶을 보여 주고, (다)의 ‘오랜 중지의 집성’인 ‘천재’는 <보기>에서 언급한 집단 속에서 완성되어 가는 개인의 삶을 보여주므로 적절하다. ⑤ (나)의 ‘영원한 갈증’은 <보기>에서 언급한 공동체적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 삶의 모습을 의미하고, (다)의 ‘합창하는 숲 속’은 ‘나무’들이 조화를 이룬 모습으로 <보기>에서 언급한 서로에게 기대어 이룩한 공동체적 삶의 모습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 41. [출제의도] 시어의 이미지 파악하기

‘나’는 ‘시끄러이 떠들며’ ‘홀어져버리’는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고 있으며, ‘앞새 없는 가로수’도 ‘나와 같이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고 한 것에서 ㉠은 ‘고독’의 이미지가 드러난다. 또한 ‘무인도’는 ‘다른 사람과 아무런 내용이 없는’ 공간으로 드러나고 있어 ㉡은 ‘고립’의 이미지가 드러난다.

### [고전소설]

[42 ~ 45] <출전> 작가 미상, 「장경전」

#### 42.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독부 되어 그 정상이 차마 보지 못할러라’, ‘보는 사람이 아니 괴이히 여길 이 없더라’에서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인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43. [출제의도] 상호텍스트를 활용하여 작품 감상하기

[A]에서는 초운이 ‘꿈인 듯 생신 듯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여 원수의 소매를 잡고 기절하’는 것으로 볼 때 상대방의 정체를 알아차렸고, <보기>에서는 춘향이 어사에게 ‘바빠 죽여 소녀의 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

는 것으로 볼 때 상대방의 정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초운과 춘향 모두 상대방의 정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A]에서는 장경이 ‘원수’가 되어 초운을 만나 대화하고 있고, <보기>에서는 이 도령이 ‘어사’가 되어 춘향을 불러 대화하고 있다. 따라서 장경과 이 도령 모두 높은 지위로 상대방과 다시 만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A]에서 초운이 장수재와 이별 후 ‘병’이 들어 ‘누년이 지나’ ‘백약이 무효’한 상태이고, <보기>에서 춘향은 ‘칼’을 쓰고 있다. 따라서 초운과 춘향 모두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A]에서 초운이 장경과 ‘언약이 중하’였다고 말하고 있고, <보기>에서 춘향이 ‘전임 사또 자제 도련님과 백년언약을 맺었기’에 수청 들라는 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초운과 춘향이 모두 과거의 언약을 중시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A]에서 원수가 ‘슬픔’을 ‘잠깐 참고’ 초운에게 질문한 후 장경과 관련된 내용을 ‘거짓말’이라고 하며 ‘다른 사람을 인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보기>에서 이 도령은 춘향에게 ‘어찌 이 도령을 믿고 수절하’냐며 ‘바빠 수청 들’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장경과 이 도령 모두 상대방의 마음을 시험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4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이해하기

‘명사를 좇고자 하느냐’에서 명사는 장경을 의미하지 않고, ‘부모 천금을 못 얻고 마음에 애연하여 장경을 원망하더라’에서 초운의 부모가 초운의 의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장경이 ‘아버이를 난중에 잃’었다는 말에서 ‘난’은 전쟁을 의미하는데, 장경이 전쟁으로 인해 부모와 이별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관비’ 차영이 ‘두루 다니며 빌어먹’던 장경에게 ‘불 사환’을 하게 하는 것을 통해 차영이 장경에게 현실적 도움을 주는 평민 이하 신분의 조력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장경이 ‘방자 구실’을 하며 ‘의상이 남루한 중에 머리에 이는 무수하고 몸에는 더러운 내가 나’는 것에서 장경은 하층민으로 살아가며 고난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초운이 ‘장경 곧 올면 저도 우’는 것에서 초운이 장경에게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조력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45. [출제의도] 한자 성어의 이해

‘오매불망’은 자나 깨나 잊지 못함을 이르는 말이므로 매일 장경을 잊지 못하는 초운의 심정을 나타내는 데 적절하다.

① ‘결초보은’은 죽어서도 잊지 않고 은혜를 갚음을 이르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사면초가’는 적에게 둘러싸인 상태나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 상태에 빠짐을 이르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이심전심’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함을 이르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풍수지탄’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려고 생각할 때에는 이미 돌아가셔서 그 뜻을 이룰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